

장흥댐 수변구역내 폐기물업체 3년째 불법 영업

유해성 톱밥 생산·유통...다이옥신 배출 우려

주민들 “환경오염 유발, 대책 마련 서둘러야”

한 임목 폐기물 제조업체가 장흥댐 수변구역내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건축물 폐자재를 이용, 톱밥을 불법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수원의 오염원을 차단하는 특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장흥군 유지면 주민들에 따르면 장흥댐 상류지역인 유지면 반월리 474번지에 위치한 임목 폐기물 제조업체인 D업체가 장흥군에 허가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톱밥을 생산, 축산농가에 유통하고 있다.

장흥 댐까지 직선거리로 2km 떨어진 댐 수변구역에 자리한 D업체는 지난 2011년 해남세무서에 지정 폐기물 제조업 신고만 해 놓고 정작 해당 지자체인 장흥군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중간 재활용 등록을 거치지 않은 채 3년간 수백t의 톱밥을 생산, 불법 영업행위를 했다.

더욱이 업체는 MDF(본드가 도색 처리된 자재)를 비롯해 플라스틱, 폐유리,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폐비닐 등 각종 유해물질이 뒤섞인 건축 폐

자재를 이용해 톱밥을 생산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는 퇴비공장으로 유통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불량 퇴비가 농가에 보급될 경우 2차 토양 수질오염을 초래할 수 있어 특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장흥군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지난 4일 현장실태 파악에 나서 뒤늦게 해당 D업체 대표 S씨를 영산강 환경유역청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각종 유해물질이 뒤섞인 건축 폐

정조치에 나서고 있다.

주민들은 “업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국의 느슨한 행정지도를 악용하고 있다. 장흥댐 수변구역의 오염원을 차단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흥댐은 목포를 비롯한 도내 8개 시·군에 식수원을 공급하는 다목적댐으로 하루 약 10만 t의 물을 방류시키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감정=남철희기자 chouli@



장성경찰, 미용실 업주 54명

‘지역치안 홍보대사’ 위촉

장성경찰서(서장 노규호)는 지난 5일 경찰서 3층 백양마루에서 여성 미용실 업주 54명을 ‘지역치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사진)

홍보대사는 앞으로 동네미용실을 ‘사랑방’으로 활용해 청소년 선도 활동과 범죄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등 범죄예방 활동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보호아동 발생시 임시보호와 학교폭력·성폭력 발생시 피해자 보호, 범죄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지원

을 펼치게 된다.

선연속 장성군 미용협회 회장은 “장성지역 치안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노규호 서장은 “3월 신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치안 홍보대사의 역할이 안전한 장성군을 만들어 가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기기자 yongho@

전남도 농업박물관 볼거리 풍성

연중 상시 체험프로그램 운영

6월부터 쌀박물관 개관도

전남도 농업박물관(관장 김우성)은 6월 “올해부터 (사)문화산업진흥회와 함께 농업과 관련한 월별·절기별로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상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부터 쌀박물관 개관과 함께 다양한 쌀요리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주요 체험 프로그램은 절기에 따른 특별 체험프로그램, 월별 미니 전시회, 월별 무료 및 유료 체험, 연중 무료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월별 특별체험 프로그램은 급박쟁기·노리게 만들기, 한지인형 꾸미기(3~4월), 표고버섯 키우기, 창포비누 만들기(5~6월), 부채 만들기·칠월칠석 체험(7~8월), 추석명절·가을 농경체험(9~10월), 연 만들기

날리기, 버선 만들기(11~12월) 등이 있다.

6월부터 계획된 쌀요리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대동밥, 국수뽕기체험과 만들기, 떡매치기와 인절미, 쌀 간식 만들기(쿠기), 전통 손두부 만들기, 전통다과 체험, 화전과 화채 만들기, 세계 쌀요리 체험 등이 운영된다.

한지공예와 전통 채색화(민화), 우리 꽃 전시를 비롯해 천연염색·칠보공예, 도자기, 전통 의복과 소품 등을 매월 주제별로 미니 전시하고, 입춘방 쓰기, 꽃 이름 책갈피·모시·천연염색 컵 받침, 매듭 만들기, 자개 불이, 전통의상 입어보기 등은 매월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전남도 농업박물관은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공휴일은 개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할머니의 봄마중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驚蟄)인 6일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들녘에서 잡초를 뽑는 할머니의 호미질이 분주하다. <강진군 제공>

영암군 복지사각 해소 총력

가장 실직·질병으로 인한 생계 곤란 등 긴급지원

영암군이 긴급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주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실직, 사망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 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단전·단수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긴급 복지지원에 나선다.

영암군 관계자는 “최근에 생활고를 비관해 세상을 뜬 서울 세 모녀의 비극을 심각한 경종으로 인식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주변 분들이 연락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 출장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바람 끝 삼에 물린 위기가장에 긴급복지 지원으로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문의(061-470-2068)·보건복지 콜센터(국번 없이 129) /영암=대성수기자 dss@

“고창 1000만 관광객 유치”

군, 관광공사와 업무협약...고인돌 유적지 등 적극 홍보

고창군이 한국관광공사와 손을 잡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발 벗고 나섰다.

고창군은 지난 6일 한국관광공사 전북협력단(단장 이철회)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선 5기 공약 사업 중 하나인 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을 통해 관광공사 전북

협력단과 군은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 등 주요 관광지와 탐방명소에 대해 공동으로 홍보하고 마케팅 계획을 수립해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군과 관광공사는 앞으로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 상품과 맞춤형 수학여행코스를 개발해 전국 수학여행단을 유치할 계획이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지역 농·특산물 통합 마케팅·유통 전남

‘정읍 단풍미인 조합 공동법인’ 출범

관내 7개 농협 참여 창립총회

출하장구 단일화 경쟁력 확보

정읍지역 농·특산물의 통합 마케팅과 유통을 전담할 전문조직이 출범한다.

농협 정읍시지부와 정읍농협 등 7개 농협은 지난 5일 농협 시지부에서 ‘정읍 단풍미인 조합 공동사업법인’(이하 공동법인) 창립총회를 가졌다.

총회에는 노병용 농협 시지부장과

유남영 정읍농협장, 손사선 원협장, 김영일 신태인농협장, 이문석 태인농협장, 정태호 삼골농협장, 옥이호 황도현농협장, 홍순경 칠보농협장 등 참여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법인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확정하고, 대표이사에 이장진 원예농협 과장을 선출하고 이사 7명과 감사 2명 등 모두 10명으로 임원진을 구성했다.

공동법인에는 7개의 지역농협이 참여해 앞으로 정읍시 농산물의 규모화 및 조직화는 물론 농산물 출하장구 단일화를 통한 시장교섭력 강

화에 나선다.

개별 농가들이 수행하기 힘든 제품개발과 시장개척, 브랜드 육성 등 마케팅활동을 전담한다. 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생산자 조직 확대 및 농업인 지도·관리에 나선다.

공동법인은 농식품부 인가후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서 2018년까지 210억원의 농산물 판매액을 달성할 계획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개발 사업 본격화

지난해 한·중이 합의한 새만금 경협단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내부개발을 책임진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12월 한·중 양국이 합의한 새만금 한·중 경협협력단지 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중 경협단지 기획팀’을 최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기획팀에서는 한·중 경협단지 조성과 관련한 정책 기획,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 협의, 한·중 경협단지 조성방안 구체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기획팀은 투자전략국장 직속으로 설치됐으며, 서기관급 팀장을 포함해 4명으로 짜여졌다.

/군산=박국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 청국장도 있어요”

염도 낮추고 냄새 없애

홍소핑 첫 선 1억 매출

순창에서 소금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청국장이 출시돼 도시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순창군은 “최근 홍소핑에 무염(無鹽) 청국장 제품을 처음으로 선보여 3000세트가 팔려 1억원의 단기매출을 달성했다”고 5

일 밝혔다.

앞으로 6회정도 홍소핑 판매를 계획하고 있어 6억원 규모의 추가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연구사업인 ‘삼삼장류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된 이 제품은 순창 토종 미생물을 사용해 청국장 특유의 냄새가 거의 없는데다 소금을 첨가하지 않아 염도를 대폭 낮췄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정읍 동학농민군 재현

지난 5일 정읍시 이평면 일대(당시 고부군)에서 동학농민군 복장을 한 시민들이 120년전 농민군이 고부관으로 향하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 <연행뉴스>

단신

남원 명품 농업대학 개강...농업인 125명 입학

지역 농업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인 재양성을 위한 ‘남원 명품 농업대학’이 6일 개강식을 갖고 12월까지 운영된다. 이번 농업대학에는 사과반·딸기반·도시농업반·포도반 등 4개과정에 지역 농업인 215명이 입학했다.

교육생들은 12월까지 주 2회(화·목요일) 총 30회에 걸쳐 영농기술을

비롯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기법 등 다양한 과목을 학습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우수한 강사들을 초빙해 현장 체험교육을 강화하고, 농업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지도사가 참여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정읍 자생차 영농조합 신임회장 최재필씨 선임됐다.

정읍 자생차 영농조합(이하 자생차 조합)은 지난 5일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회장 위임식을 가졌다. 최재필(태산명차)씨가 자생차 조합을 이끌어갈 신임회장에 취임했으며, 부회장에 신득호(정읍 흰민들레)씨, 총무 정명성씨(E.O.T 켈러리)씨, 재무 김영옥(알로에사랑)씨가 각각

선임됐다.

최재필 신임회장은 “올해 농작뿐만 아니라 구절초차 등 대용차 생산자들도 조합에 참여하게 된다”면서 “자생차 영농조합을 보다 건실하게 운영하고, 정읍특화작목의 대표주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 농림축산 식품산업 정책심의 635억 의결

순창군은 지난 5일 농업 기술센터에서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선정을 위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열고 4개 분야에 82개 사업 635억원을 의결했다. 지난해보다 82건에 21억원이 늘었다.

분야별 사업 신청현황을 보면 ▲

농산분야 26건 540억원 ▲산림분야 16건 27억원 ▲축산분야 3건 24억원 ▲지도분야 37건 44억원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정책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82건의 사업은 10일까지 국·도비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고창 군립미술관 ‘서양화풍, 고향풍경전’ 전시회

고창 군립미술관은 6월 30일까지 ‘서양화풍에 담아낸 고향 풍경전’을 개최한다.

개관 이후 5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농악 공연 현장 시리즈로 유명한 홍순무를 비롯해 오강성, 박삼영, 임병남, 조병완, 김치현 등 고창 출신 국내 중진작가들의 작품을 대

거 선보인다. 또한 김해욱, 이선자, 박선희, 유은숙, 김정애, 강소애 작가의 공예품도 함께 전시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 출신 중견 작가들의 작품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